이었죠. 그래 나중엔 언어장애까지 생기데요. 밥이란게 말입니다. 젓가락으로 딱 네 등분해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양이었어요. 밥을 주던 간수가 그러데요. 이걸 2년 동안 먹으면 죽는 게 당연하다고요."

처음 20년 동안은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그 뒤 10년은 습관이 돼서 나머지 5년은 조건이 조금 나아져서 참을 만 했다. 과연 무슨 힘이 36년 동안의 그 혹독하면서도 외로운 감옥생활을 버틸 수 있게 했을까? 대답은 너무나 소박했다.

"북의 제도는 서민중심의 세상입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어느 것이 지향해야할 제도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나는 서민중심의 세상인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나의 확신이었습니다. 또 조국과 당이 나에게 해준 배려들을 생각할 때 조국에 대한 배신은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6년 간 지불한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전향제도 없애는데 작으나마 일익을 했다는데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98년 3월 13일 최하종 선생과 같이 출소한 선생에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응이다. 감옥은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TV 조작법도 모르는 무능력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선생은 요즘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에 나가는 등 몸에 배인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

"이 나이에 왜 취로 사업에 나가냐구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안은 자력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생활자체가 염려되는 상황이라서요. 여지껏 저에게 관심을 보내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다면 남을 돕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성치 않은 몸이긴 하지만 될 수만

있다면 장기기증을 꼭하고 싶네요."

담담하게 자신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선생. 할 수만 있다면 북으로 가기 전까지 고문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못 가누는 선생의 두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었다.

▌김중종 선생

가족의 살부지수가 민족의 살부지수로

"이제 송환을 앞두고 기쁩니다. 반외세 자주, 민주화를 이끌어 온 민주 적 세력과 민족적 양심을 지켜 오는 일에 도움을 많이 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습니다."

송환을 앞두고 솔직하게 소감을 말하면서 김중종 선생은 가족의 살부지수(殺父之讐)로 이야기의 서두를 꺼낸다. 조부가 38세에 일제에 의해 옥사를 하게 되였기에 증조모로부터 늘 '집안의 살부지수를 잊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그때의 살부지수는 일제였다. 그러나 해방 후 일제가 물러가면서 진정한 해방을 기대했지만 참다운 해방은 오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이 일제 앞잡이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총독정치 대신 군정을 하면서 미국의 식민지 지배는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아무런 청산 작업 없이 그대로 등용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삼았다. 일제의 반일세력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던 치안유지법이 미국의 통치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되었을 뿐 그대로 다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의 아픔은 선생님 가족사의 아픔을 훨씬 넘는 것이다.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 선생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소위 '5·10 망국적단선'의 반대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세력들은 자신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단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416명의 사망자와 858명의 부상자를 낳게 되었다. 미국의 UP통신도 '이날 서울에서 웃는 사람은 어린아이들뿐이다.'라고 개탄할 정도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단독선거는 진행되었다. 선생은 단선반대 투쟁으로 퇴학당하였고, 지명수배되어 48년 12월 체포되었다가 49년 3월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50년 전쟁에는 인민군으로 참전하였고 51년 제대했다. 그 후에는 검사의 길을 걷게 된다. 애국자(옥사한 조부)의 후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52년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남도 경찰소 검사로 재직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박헌영, 이승엽 공판을 참관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했다.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는데 막내딸이 백일도 되지 못했을 때에 공작원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61년 7월에 내려와 8월에 체포되었으며 15년의 형을 언도 받았다. 77년 3월 11일 출소와 동시에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보안감호소에 수감되고 89년 석방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선생의 조부 또한 36세 때 '불법월경죄' 즉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로 인해 5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 또한 북조선에서 남한으로 넘어옴으로 인해 29년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의 통치보다 미국치하의 통치가 더 가혹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 후의 감옥생활은 혹독했다. 하지만 선생은 전향공작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꺾지 않았다.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자신의 양심을 굽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민족의 양심'이 자꾸 나의 마음을 후비며 다가온다. 애국이 전과자가 되고 반제 투쟁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자꾸 괴로워진다. 외세를 몰아내는 것에 생을 다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의 모습이 더 커져 보인다.

지금은 우리 옛말을 풀어 읽어 우리 이름과 역사를 해독하고 일본 지명이나 천황의 계보까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제 곧 책으로 출판이 될 것이며 일본에 학위 논문으로도 제출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짧은 출옥 후에도 선생은 쉬지 않고 있었다. 늘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연구에도 민족의 자존심이 엿보이는 것이다. 선생의 살부지수였던 일제의 그 근본뿌리에 대한 해독.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살부지수의 원한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는 무거움이 느껴진다.

이종환 선생

죽을 각오로 살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선 TV보고, 잠자고… 당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겠죠? 오늘은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생활이 부끄러울 만큼 특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이죠. 처음 뵈었을 땐 함께 자리를 한 다른 분들 때문에 몇 마디밖에 말을 나주지 못했죠. 오늘은 혼자에요. 설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젯밤에는 잠까지 다 설쳤거든요.

신림역에서 내려 포도를 사고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만 정류장을 잘못 알고 내려 언덕길을 한참 올라서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선생이 직접 마중 나와 웃음으로 반겨주었죠.

이종환 선생의 집. 방 한 칸, 욕실, 그 공간을 잇는 복도겸 부엌. 작은 집이었지만 사십 년을 넘게 생활한 시멘트 방 0.75평에 비할 수 있을려구요. 마침 저녁식사 시간이라 선생이 지어주신 밥을 먹었어요. 남은 김치로 끓이셨다는 국이 얼마나 맛있던지 두 그릇이나 먹게 되더라고요.

밥상을 물리고 선생이 들려준 소설 같이 살아오신 이야기들. 선생은 고향이 경기도 부천이래요. 3남 5녀 중 다섯째인 선생이 태어났을 당시

는 가세가 기울어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을 때 라죠. 22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네요. 선생의 아버지는 양조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열두 살 때 그만 동상으로 돌아가셨데요. 때문에 국민보통학교 5학년을 다니던 선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무를 해다 팔았고 열댓 살부터는 품팔이나 사방 공사장 등에서 일을 했고요. 열일곱 살에는 우편 배달을 1년간 하다가 철공일을 했대요. 2차대전 중이었던 당시 징집대상 연령보다 나이가 많았던 선생은 다행이 군대에 가진 않았지만 철공일로 일본에 갔었대요. 그리고 해방을 맞은거죠. 그때 직장에 대한 노동자의 공포심을 알게 되었대요. 필요할 땐 모셔(?)가고 이용 가치가 없어진 뒤에는 부러진 우산처럼 내어버리는 자본가의 욕심에 대한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곧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회주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그 동안 쌓였던 남북한의 적대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간간이 보이는 극우파의 외침들(속지말자 북괴 어쩌구…)을 현수막이나 쪽지들을 볼 때면 웃음조차 안 나요. 하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일 년에 두어 차례씩 반공포스터니 글짓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빨갛고 반공소년 이승복을 죽인 짐승(?)들인 줄만 알았던 그 시절. 사실 우리 친할아버지도 평안북도 출신이셨는데.

선생의 다음 이야기는 소설 이야기라도 듣는 것 같았어요. 해방 이후 38도 분계선이 그어지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미국에 붙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켰던 분통한 역사는 아마 당신도 잘 알고 계실 테지요. 게다가 미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벌되었던 억울한 역사까지도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외세가 아닌 우리 힘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려 국외에서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의 입국을 미국이 막았다는 사실이죠. 그분들은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자신의 나라에 입국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요.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은근슬쩍 넘어간 신식민사회를 경험한 선생은 분단된 조국을 외세가 아닌 우리 손으로 통일하고자 통일 일꾼으로 활동하려고 준비했대요. 그러나 정작 활동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옥살이부터 했던 것이었지요. 48년 남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나라의 분열을 우려한 많은 인사들이 단독정부를 반대했고 때문에 암살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소원을 '통일', '통일', '통일'이라고 외쳤던 백범 김구 선생 역시 이때 암살당하거죠. 그때는 북진통일만이 전부였다죠. 평화통일을 외쳤다가는 간첩 죄명이 씌어져 구형 당하는 세상이었다니 북한 찬양 고무죄 덕분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옥살이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지금 충분히 그 상황이 상상돼요. 선생 역시 그때 체포되셔서 54년에는 무기로 확정되어 귀결로 넘어갔대요.

전향제는 195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비전향 제소자들은 독방에 책이나 면회, 서신조차 금지되어서 주거식 문제로 많은 싸움들을 해야 했대요. 주로 단식 투쟁이 잦았는데 가까스로 규제를 완화시켜 놓았다가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되면 헛수고될 때가 역시 많았고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위염 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잦은 단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충격이기조차 했어요. 전향을 강제하기 위해 구타는 기본이었거니와 강제 급식까지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위벽이 깎이는 고통을 당한 것이죠. 강제급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것인데, 의자에 앉혀 놓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고개를 젖혀 호수를 위에 들이민 후 짠 죽물을 먹게 한 것이 예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그림이죠. 직접 당하셨던 분들에겐 살아있는 악몽이겠죠. 73년부터는 전향 전담반이라는 조직이 생겼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는 말은 가관도 아니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말고 전향시켜라." 많은 고문과 회유책에도 전향하지 않은 분들. 동네 할아버지처럼 평범해 보이고 작은 체구이신 선생이 어떻게 그 공작들을 다 이겨내셨을까? 어디서 그런 힘을 갖고 버티셨을까? 선생이 계속해서 들려준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부끄러움을 주는 채찍질과 같이 느껴졌어요.

'도둑질도 강도질도 아닌 외세에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려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는 조국 통일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보안감찰법이란 감시 속에서 생활한 선생. 만 70세가 되고 햇수로 43년을 살아서야 다시 보게된 세상 빛. 이제 9월이 되면 선생은 북한으로 간다지요. 50년 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었는데 아내는 죽고, 딸은 지금은 살아있는지 조차 모른다지요. 암울한 터널을 지나 이제 바라던 북한으로 가는 선생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선생을 다시 볼 수는 있을까요?

선생이 겪었던 지난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풀어진 마음의 가닥을 모아 잡아봅니다. 죽을 각오로 살기. 옳은 일을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의지하지 않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깊어지는 밤은 저를 더 이상 앉아있게 하지 못했지요.

마지막으로 선생은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통일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는 통일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7천만 온 겨레가 단결하여 자신의 몫을 해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고요. 또 고난모임의 목사님과 총무님, 간사님, 회원님들께 감사하단 말도요.

할아버지 같으신 분과의 몇 시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고두고 되새기며 기억하려해요. 언젠가 그 날이 되어 다시 선생을 만날 때 잊지 않고 오늘의 이야기를 할꺼 예요. 그때는 이곳이 아닌 북한 땅에서 선생을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선생님, 꼭 건강하세요.

▌이세균 선생

민족의 자주성은 지켜야 한다

서울 번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이세균 선생을 만났다. 여름철이라 무척이나 더운 날씨임에도 반갑게 맞아 주는 선생은 먼저 약소 민족이 외세에 침략을 받게 된다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투철한 투쟁을 벌여야 하며 그보다 먼저 지배를 받지 않도록 자주성이 보장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고창중학교를 졸업하고 44년 11월 전매청에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선생은 일본 야하다 제철소로 징용을 가게 된다. 일본이 패망하기직전 7월 중순에 야하다 제철소를 탈출하여 귀국했다. 이후 해방이 되자 전매청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48년 5월부터 친형이 청주 시당 책임자가 되면서 선생은 시당 조직부의 일을 하게 되고 학교와 기관 등에 있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특수선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와해되었던 대구의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형은 3월 하순 대구로 가게 되고 이후 5월 대구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아마 체포된 조직원들과 재판도 없이 살해된 것 같아. 조직원이 수십 명일텐데, 수십 명이면 큰 사건이잖아. 이 사건의 기록을 찾아보고 있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처형당한 것 같은 형의 사건, 이것 때문에 선생은 이번 송환에서 스스로 남겠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후 선생은 49년 6월 25일 열리는 조통 결성식에 참가하라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월북을 하게 된다. 월북한 선생은 회령 제3군관학교에 입교했고 그 해 10월 유격대의 재편성 후 화천군 사내면으로 배치되었다.

유격대로 배치된 선생은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오가게 된다. 한번은 수색대로 본대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고 본대가 지나가고 난 뒤 후비대로 본대를 좇아가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선생이 소속된 수색대는 앞서 수색을 하고 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본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본대가 지나가자마자 바로 그 산 위에서 기총 세례가 쏟아지는 것이다. 본대가 올라간 바로 그 방향에서 쏟아지는 기총 세례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천운이랄까? 선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또 한번은 강릉 야산의 어느 고지였을까. 유격대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아침에 밥을 하다가 국군에게 포위되었다. 기습을 당한 터라 유격대의 희생은 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선생은 살아남았고 골짜기 바위틈으로 숨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 골짜기 건너에서 선생을 발견한 국군의 M1 조준 사격을 받았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바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서울 육군형무소에 수감된다.

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후인 27일 아침 80명 가량의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기 위해 그냥 죽이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생을 비롯한 많은 수인들은 살아남아 석방되었다. 이후 선생은 임시 서울 인민위원회의에서 각 지방 유격대를 조직하는 것에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한강변에서 인민군보다 먼저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이승엽의 연설 장면은 지금도 선생이 기억하고 있다.

선생은 군산으로 내려갔다가 6사단 교도대대에 소속되었다. 마산 진입

로 근처에서 고지 탈환 작전 중 광대뼈에서 귀 뒤로 얼굴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아마 조금만 비켜 맞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으리라. 그 후 진주로 후송되고 51년 3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60년 15년형으로 감형되어 66년 7월 8일 만기 출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75년 사회안전법으로 감호 처분을 받게 되고 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게 된다.

'왜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말을 한다. 선생은 일제지배 구조 그대로를 유지한 미국점령으로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하고 외세지배만 바뀌어 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 민족의 자주성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지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장구한 기간 비전향 장기수로 남게 되었다는 이유다.

선생은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견지할 것도 강조하였고, 그것에 일생을 헌신하였다. 선생 개인의 헌신은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적인 양심으로 오늘날 통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하는 것으로 각인된다.

▌이경구 선생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이경구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선생의 뒤늦은 결혼 이후 한 집들이 때였다. 그때는 고난 일꾼으로 함께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장기수를 만난다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새로 맺어야 할 관계 앞에서 서먹해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듯 선생은 얼굴 가득 반가움을 감추지 않으면서 우리 일행을 맞았다. 여느 신혼집처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머물다 온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백서 인터뷰를 위해 우리 집으로 오셨을 때이다. 아이 둘로 인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고려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배려를 보인 것이다.

두 번의 만남이 모두 가정이라는 포근한 울타리에서 이루어져 그런지 선생에게서는 누구라도 껴안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에게나 고른 그늘을 나눠줄 수 있는 몇 백년 된 고목과 같은 느낌이 전해졌다. 모진 세월을 살아왔건만 힘들어 지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칠십이라는 육체적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건강과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한 패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선생은 30년 충북 공주에서 빈농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부모가 지주 둘에게 수모를 겪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단다. 어린 마음에도 논밭이 많아 부자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른 부러움과 혐오감이 컸다고 한다. 부모 곁에서 어렵사리 보통학교는 마칠 수 있었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선생은 보통학교 시절 어머니로부터 나라의 독립에 관한 얘기를 간혹 들을 수 있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큰일난다며 쉬쉬하고 한 말은 우리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면 남녀가 평등하고, 내 것 네 것이 없이 공평하게 산다더라는 것이었다. 그런 세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다가도 일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비교 당하고, 차별 받을 때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초보적인 민족의식이 싹텄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해방 이후 선생은 서울로 상경해 일을 하며 학비를 벌어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함께 좌익세력이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 인해 분단이 되었다는 의식은 반미운동으로 이어졌고 학생들 사이에도 번질 때 선생은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심정적 동조를 계속 보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에는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입대해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군 복무 시절 노동당에 입당해 당의 연락부에서 2년 정도 학습과 훈련을 충실히 받았다. 1·4후퇴(선생은 1·4 진격이라고 표현)때 무질서함 속에서 남쪽으로 되돌아가는 동지들이 많았지만 선생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자신을 다졌다. 그 후 52년 11월 순천강을 건너 원주 부근에서 체포되었다.

39년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시기였을 텐데 말이 없는 것에 의아했지만, 얘기할 무엇이 딱히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변화 없음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음밖에. 다만

74~75년에 걸쳐 자행된 전향공작반에 대해서는 채 가시지 않은 분노를 나타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네 잘못을 인정하면 풀어주겠다는 말에 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39년의 옥고를 치르게 한 것이다. 스물셋에 잡혀 가족 생각에 힘들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감옥 안의 처우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했지만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선생은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서 담장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 꽃다운 청년은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록 위염, 위궤양, 기관지 천식, 심장악화 등으로 몸은 병들었지만 사회변혁을 가슴에 묻고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 옛날 서울로 상경해 일하며 공부했을 때도 그랬듯이 선생은 자립적 생활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어려운 날을 보내다 윤혜경 씨(개마서원)의 소개로 '말'지와 인연을 맺은 지도 8년이 되어 간다. 진보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바램이 있냐는 질문에 선생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답게 사는 좋은 세상과 하나된 조국을 꿈꾸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생의 생각이었다. 현재의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도 숱한 세월 꿈에도 그리던 곳이기에 송환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제 머지 않아 선생은 북한에 가게 될 것이다. 설령 북한이 기대와는 사뭇 다른 현실의 모습을 갖고 있다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다.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세워진 나라로 어차피 지금의 남한보다는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란다.

선생은 요즘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감옥 안에서 하던 대로 1

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의 나이가 칠십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젊어 보이는 비결에 대해 선생은 옅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형식 선생

언제까지 남의 종살이를 할 것인가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통일의 숙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감옥에 갇힌 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통일일꾼, 불필요한 통일사업, 불필요한 양심수가 양산될 뿐입니다."

오형식 선생은 32년 4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신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복중학교 5학년 재학 중에 조선의용군에 입대하였다.

"당시 통일정부의 의용군이라는 생각으로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 의용군에는 15세 가량의 학생들부터 60세의 할머니들까지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선생이 말하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조선의용군들은 낙동강 남쪽만 남겨 놓고 나머지 지역이 통일되었을 때 자주통일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한다. 서울, 인천의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반미적 색채가 강했기에 인천상륙작전 후 조선의용군이 후퇴할 때 선생은 북한으로 갔다. 58년에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 입학, 63년 졸업한 뒤 원산농대 화학강좌 상급교원(조교수)으로 일했다.

69년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공작원으로 부산 기장에 남파된지 10

일만에 체포됐다.

"그때 당시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족들이 있었던 선생은 체포되기 전 외갓집에 들렀다가 친척의 신고로 체포됐다. 69년 6월12일 체포 후 노량진 경찰서에서 3일간, 미정보부대에서 8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71년 3월 재판을 받게 된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어이없게도 무척이나 간단했다. 재판이라고 해야 고작 검사가 30분 동안 조사하고 관선변호사가 즉석으로 변호하고 판사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 후 선생은 대전교도소(71-75년), 대구교도소(75-85년), 대전교도소(85-92년)에 갇혀 생활했다.

어머니는 1991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에게 면회를 왔다. 교도소 측의 전향 유혹은 가족에게도 계속되었다. 전향서에 서명만 하면 곧바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줄 아신 어머니는 "감옥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일단은 나와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라. 도망을 가더라도 일단은 밖에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아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한번만 만났으면 하는 소망을, 감옥에 갇힌 후에는 제발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모습일텐데, 선생은 끝내 전향하지 않았다.

"어머니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얼굴을 본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전향공작은 계속되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그 당시 하던 야채장사도 방해를 받아 살림이 어려웠다고 한다.

선생은 92년 다시 대구교도소로 이감, 99년 2월 25일 출소하여 만 30년간의 옥살이에서 풀려났다. 처음 사형선고에서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변하지 않는 선생의 신념이었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야한다.' 선생의 통일에 대한 헌신은 경복중학교 5학년 때 조선의용군에 들어가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한평생을 민족의 통일운동에 바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 이후 장기수 송환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는 아내와 2남 1녀의 자식들이 있다. 숫한 이산가족들 앞에 염치가 없어 가족의 소식을 알아볼 엄두를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 있었다.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남한에서 산다고 해도 선생은 자기의 할 일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길이란 한 번 갔다고 해서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고 오고 길이 닦여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생은 얼마 전 매향리에 다녀 왔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지휘권 하나로 1백만의 한국군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의 군사비의 절반은 될 겁니다."

선생은 우리 나라를 분단시킨 미국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남의 종살이를 하지말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역사가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후진도 하고 좌·우회전도 할 수 있어야만 전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데에는 자본주의의 생산의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생은 "사회복지 시설은 원래 사회주의 이념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도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뿐인 지구에서 미국 혼자 잘살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8세의 나이에도 청년의 기상과 웃는 얼굴을 가진 선생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통일 일꾼들에게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의 말을 맺으며 활짝 웃었다.

▌신인영 선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뿐입니다

32년 간 옥중생활을 하다가 지난 1998년 3·13 김대중 대통령 취임특사로 석방된 신인영 선생은 지금 북송을 준비중이다. 선생은 북과 남에 모두 가족을 두고 있는데, 아흔이 넘는 나이로 옥바라지를 하며 자신을 돌본 어머니 고봉희 여사를 모시고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선생은 29년 12월 6일 전라북도 부안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와 외조부는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로 사돈의 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선생은 일찍부터 자주와 독립, 민족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해방 후 선생은 진보세력의 일원으로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민족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서울상대에서 수학하던 중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 조국해방전선에 나섰다. 후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이영화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선생은 67년 조국의 남쪽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공작원으로 잠입했다가 귀환하던 중, 선박의 고장으로 좌초되어 체포되었다. 68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선생은 남한정부가 자신에게 붙여준 '간첩'이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자신

은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기밀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자, 즉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에 다른 나라로 볼 수 없으며, 남쪽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기에 지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옥중 생활의 많은 부분은 사상전향공작을 견뎌내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투쟁으로 채워졌다. 0.75평의 독거 감옥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한 것이었다. 식사제공, 운동시간, 일조권, 독서권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교도소 당국에 대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은 그들이 처우를 개선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전향공작은 면회, 조직된 자선단체의 방문, 사회시설 참관 등 장기수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편의를 중단하는 회유와 중세기적 고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73년 11월부터 74년 4월까지 박대통령의 지시로 수행된 전향공작은 많은 동지들을 전향자로 만들어버리는 악명 높은 것이었다. 가출옥을 미끼로 파렴치범들에게 옥문의 열쇠를 주고 폭력의 공작정치를 벌이게 하거나 강도 높은 고문으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향을 강요하고 날조하였다고 한다.

70~80년대는 옥중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다. 대학생들은 공산주의자와 함께 수감되는 것에 항의했지만 곧 이 장기수들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투쟁의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전향 장기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 만난 대학생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민주화운동을 고조시킨 주역이 되어, 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이 땅의 진보세력 공백기를 다시 이었다고 선생은 회고하고 있다.

잦은 단식과 고문은 결국 선생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교도소측은 노년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정을 내려 외래진찰을 불허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

르렀다. 결국 97년 6월 성모병원으로 후송돼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된 어머니와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는 꾸준하게 정부에 특별사면을 요구하여 98년 3월에, 70세 이상이라는 특사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승인을 받게 되었다.

3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투옥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고 한다. 집요한 전향 권고를 마주할 때마다 선생은 인간역사의 발전이 수많은 피와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같이 자명한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임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명감은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했다. 또 선생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었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증명된 자유, 즉 사상의 자유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수많은 인민대중의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자유를 폭력과 강압에 못 이겨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신념과 사상이 그 내면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북송을 앞두고 있는 선생은 지금 먼저 떠나보낸 동지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옥중의 고문에 못 이겨 스스로 자결하거나 고문후유증과 단식투쟁으로 많은 동지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들을 생각하면 살아남은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더욱 동지들의 숙원인 통일의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생은 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북송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북송된 적이 있는 이인모 선생의 경우와 다르게 이번 장기수들은 남과 북 모두에 연고자와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긴 투옥생활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끈끈한 인간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만약 북송 자체로 끝난다면 또 다른 이산가족, 제2의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현상을 빚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으로 갔다가 다시 남으로 올 수도 있는 송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평생을 싸워온 목적인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길입니다. 세계화니 지구촌이니 하면서 마치 한 공동체로 묶인 듯이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치열한 민족간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뿐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연합이나 낮은 형태의 연방제 통일안만이 실현가능합니다. 단일한 체제로의 통일은 우리의 후세들에게 맡길지라도 이 세대에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방제를 이룩해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안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의 길입니다."

선생은 앞으로의 계획을 장황하게 구상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선생을 괴롭히는 골수암 때문이다. 북송이 이루어지면 우선 북의 발전된 고려의학으로 자신이 지고 있는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대로 남한에서 비전향 장기수로 투옥생활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민족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노모가 북행에 동석하지 못할 경우 초청을 통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광수 선생

조국통일의 벽 허물기

신광수 선생은 29년 6월 27일에 일본 세주호라 현 하나마즈 시 아라이마지에서 신중달의 5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선생은 그 곳에서 자라면서 민족차별과 계급차별이란 식민지 백성의 처지를 절실히 느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소학교를 다녔고, 공업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되어 45년 10월초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이었지만, 고모가 살던 경상북도 포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곳에서 포항중학교를 다니다가 48년 2월 7일에 이승만의 5·10 단독 선거 반대 투쟁(2·7 구국투쟁)에 참여했다가 수배를 받게 되어 서울로 올라와 50년 7월까지 서울 보성중학교를 다녔다.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인민군에 자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53년 초에 제대하였다. 그 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업대학 기계 대학부에 입학하여 6년 간 공부를 하다가 60년 평양으로 돌아와 평양의 자연과학원의 기계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되었다. 연구원으로 생활하면서 61년에 결혼을 하여 4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선생은 평생소원인 조국의 통일을 위해 66년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조국통일 사업부에 자진하게 들어갔다. 이후 일본에서 활동했

는데 85년 2월 26일 음력설에 동포가 서울에 같이 가자고 하여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 안에서 국가 안전기획부원에게 체포되었다. 곧 서울 구경하러 오다가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옥살이를 하시게 된 것이다. 85~88년까지는 사형수로 생활했으나 89년 무기수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전향만 하면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전향 공작의 유혹으로 고통 당하기도 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선생은 다른 선배 열사들처럼 당당하게 조국통일을 외치며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 유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향하지 않은 양심수들의 인권에 대하여 여러 번 단식투쟁하였다.

선생은 99년 12월 31일에 15년 간의 복역을 끝내고 출소하였다. 출소한 후에는 남쪽의 민주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조국통일의 벽을 허물기 위한 활동이라고 선생은 말한다. 선생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제국주의적인 교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오면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손성모 선생

통일은 반드시 된다

손성모 선생은 29년 12월 11일(음력)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에서 손윤선(손낙준)과 김성녀의 사이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소작을 하였기에 집안 형편은 매우 가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살까지는 서당을 다녔고, 39년 4월 1일에는 격포간이학교에 입학하셨다. 그러나 40년 대흉작으로 큰형은 일본 북해도 어느 탄광의 광부로 가게 되었고 42년에는 아버지가 땔감을 지고 오다가 허리를 다쳐 크게 앓았다. 큰형에게 전보를 치러 갔지만 일본 순사가 돌아가신 후에 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임종도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11살 때부터 선생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미 김일성 장군에 대한 전설적인 소문이 돌아 당시 아이들이 모여서 전쟁 놀이를 하면서도 김일성 장군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한다. 이 때에 김일성 장군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선생은 서울에 가면 고학으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매부의 말을 늘 마음 속에 가졌기 때문에 44년 6월초에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집을 떠났다. 그러나 돈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보지도 못하고 호남평야 진동면 고사리에 머무르게 되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아저씨가

할 일이 없으면 와서 농사일을 도우라고 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농사일은 매우 힘이 들어 그만 하려고 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던데' 라는 말이 생각나 그곳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적응이 되었다. 농사일을 도우면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45년에 해방을 맞이하여 서울로 다시 향했다. 그 집을 떠나던 날, 농사일을 돕던 집 아주머니가 5원을 주면서 쌀밥 한 그릇 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나중에 꼭 한번 찾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는 조선 땅의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가서 자신이 농사한 곡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을에도 쌀밥을 먹기 힘들었는데 아주머니는 그 쌀밥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했다.

서울로 향하려 했지만 기차 값이 부족하여 이리로 가게 되었다. 이리에 가서 건국청년학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48년 6월에 서울에 올라와 3년 과정의 영수전문학관에 다니게 되었다. 이곳에서 6·25를 맞아 조선인민군에 자원했다.

"남쪽에서는 끌려갔다고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징집이 아니라 자원제도였고 지금도 북쪽은 자원제도인데 왜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선생은 자원 입대 후에 3년 동안 보병생활과 포병생활로 전쟁의 가장 앞에서 싸웠다. 전방에서 전투를 하다가 56년 12월에 제대하고 김일성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했다. 군 생활 중 두 번의 부상으로 인해 후방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부를 마치고 김일성 대학에서 1년 간 철학강의를 가르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조선노동당 역사를 가르쳤다. 대학시절에 강원도 함흥에서 결혼하였고 평양에서 생활하면서 3남 1녀를 두었다. 이때가 가정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러나 선생은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통일로 생각되어 71년 대남 사업에 자원하였다. 80년 5월 남쪽으로 내려와 통일운동을 하다가 81년 2월 15일 체포되었다. 당시 선생은 통일을 이루지 않는 한 살아 있는 상태로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자결을 결심하고 독침과 독약을 먹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목에 있는 동맥을 끊다가 잡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선생은 자주권을 잃었으니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미 20~30년 감옥살이를 하는 장기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생은 감옥에서라도 통일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장기수와 같이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선생의 감옥 생활을 지탱해준 것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다.

"통일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확고하게 말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죽기 전에 꼭 통일조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생은 여러 교도소로 옮겨다니다가 99년 12월 31일 감옥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선생은 지금도 이 시대의 절실한 요구는 통일이고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계승하여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은 감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연결이 되었고,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었다 한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종교도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한다. 종교가 민족의 시대의 부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아편이 아닌 것이다. 선생은 자신의 공책을 뒤적이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기독교 사회학자 찰스 킹스레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학자의 말처럼 종교가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생은 기독교도 처음에는 민중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지배층을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끝으로 선생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자유 왕래가 이루어지면 보다 수준 높고 확실한 통일운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와 전망을 남기고 그의 말을 마쳤다.

▌한장호 선생

민족의 공존 공영을 위해

선생은 23년 5월 1일 함경북도 나진시 신안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선생이 살았던 지역은 농민운동이 활발하던 지역이었기에 자연스레 영향을 받았다. 특히 37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 장군이 크게 승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시원해 하면서 '우리도 죽은 게 아니구나,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하고 민족성을 각성시키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다. 당시 신문, 잡지에 김일성 현상금을 15만 원으로 하고 계속 광고가 게재된 것도 기억에 남아 있다. 15만 원이 그 당시 얼마나 큰돈인가!

나진은 철도의 기점이어서 철도 직원이 많았다. 열차에는 화포를 달고 다녔는데, 철도 직원으로부터 '오늘은 어디를 가질 못했다 또 어딜 가질 못했다.' 하는 얘길 많이 들었다고 한다.

45년 해방 이후 식량이나 생활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더 어렵게 되었다.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은 형편없었다. 해방 후 각 지역(각 도나 군 단위)에 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를 세웠지만 미군정하의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폐지되고 말았다. 선생은 일제하와 미군정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선생은 1946년 3월 경성대(현 서울대)에 입학했다. 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안 반대운동이 학교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비록 이 대학이 일제시대의 대학이지만 민족교육이 이뤄지는 민족대학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미군정은 그들의 의도대로 미국식 교육이 이뤄지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이 안을 강행했다. 선생은 "현재 이 나라의 통일을 50년 동안이나 가로막고 있던, 분단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면서 "정치 권력의 50%이상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냐. 어쩌면 미군정이 원하는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요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 망국병인 일류대학, 고액과외 폐해를 더불어 생각나게 한다.

선생은 48년에 졸업하여 한성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한국전쟁 후 북으로 가 순안중학교에서 다시 교사 생활을 했다. 당시 남쪽의 이승만 정부가 북침을 계속 외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선생은 '전쟁으로 덕을 보는 건 누구인가? 왜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누가 전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생은 55년 말 남으로 내려와 57년 특무대에 체포되었다.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구형에 무기형을 선고받았는데 죄목은 '국방경비법 위반'이다. 처음 징역은 대구형무소에서 시작했다. 사형수는 3등 밥을 주는데 당시 한 사동에 밥이 60-70개의 3등 밥이 있는 걸 보아 사형수가 무척이나 많았던 걸 알 수 있었다. 그 사형수들은 대개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4·19 혁명 당시 사면이 있었지만 이북 사람들은 제외되었고, 5·16후 8월쯤에는 이북 사람들을 전부 대전 형무소로 집결시켰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조직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아마 700-800명쯤 대전 형무소에 모였을 것이다. 당시 감옥생활은 배고픔과 폭력이 일상화해 있었다. 또 나중에 출감해서 듣기로는 전향을 해서 밖으로 나왔어도 관계기관에 불려간 후로 소식이 없는 이들

이 많았다고 한다. 69년경 사람들을 분산하게 되는데 이유는 김신조가 내려와서 대전형무소를 습격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선생은 광주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광주교도소는 마루가 깔려 있는데 생활 하수를 버리기엔 변기통이 너무 작아 마루바닥 한쪽으로 흘러보내는 일이 많았다. 간수들은 구멍 뚫는 것을 제일 싫어했는데 아마 밤에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밤에 들어와 조사를 하는데 쥐가 뚫어 놓은 구멍을 발견한 것이다. 생활 하수를 버리니 먹을 것이 있었고 쥐들이 그곳에 모여 구멍을 뚫은 것이었다. 다짜고짜 날아드는 주먹과 발길질에 선생은 무자비하게 맞았다. 맞는 도중 '이러다간 죽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간수를 냅다 걷어찼다. 결국 수정을 차고 계속 맞는데 의무과에서도 다시 싸우려들자 간수장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 마무리된 일이 있었다.

73년도에 벌어졌던 전향공작은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운동이 없다. 의무과 치료를 못 받는다. 책을 보지 못한다. 당신들은 영치금을 못쓴다. 매점의 물건을 살 수 없다. 당신들은 편지를 못쓴다."라는 소장의 말로 전향공작은 시작되었다. 가마니 하나되는 방에 12-13명의 인원을 넣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으면 서로 발을 엇갈리게 놓고, 운동을 하려면 자세를 조금씩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 좁고 긴 의자에 뉘여 놓고 목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코는 젖은 광목으로 덮으면 입은 자연스레 벌려지고 입에다 물을 분기 시작하는데…. 선생은 얘기를 미쳐 다 마치지 못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물을 분다고 되나요….' 하는 얘기가 계속 맴돌았다.

선생은 지금 전향과 비전향을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때 일반 범죄자들을 가출옥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무자비한 고문에 동원하였는데 그 고문을 왜 이겨내지 못했냐고 묻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다. 거구였던 어떤 사람은 밥을 1/3로 줄이자 도저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만 경우도 있다. 이 일은 75년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기막힌

세월을 견디다가 선생은 95년에 김선명, 안학섭 선생과 함께 출소했다. 3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셈이다. 39년….

출소 후 1년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양로원에 보내졌는데 양로원에서 선생의 짐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 곳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다. 곧 인력시장에 나가 그 때 그 때 주어진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조금 낫게 일을 할 수 있었다.

고향에 돌아가게 된 소감을 묻자 의외로 '덤덤하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얘기는 "통일은 필연적인 역사 발전이다. 지금 그리고 나는 그 역사 안에서 과도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인생을 조망한다. 남한의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얘기도 덧붙인다.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일인데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중요한 일도 아니고 더욱이 사소한 일에 그리 하는 것은 통일운동에, 이 역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마침 대법원에서 날아온 편지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 났다는 통지문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남쪽에서 채워진 한가지 족쇄를 푸는 순간이었다. 국방경비법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이러한 죄목들이 한 인간을 39년간이나 무자비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철저히 인권을 말살할 만한 끔직한 범죄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고향으로 가시면 무얼 할 것인지 여쭈었더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바라는 게 있다면 학교를 둘러보고 싶다."고 한다.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장성했을 터인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소박한 바람이다. 아직껏 변하지 않는 신념과 생각을 가진 선생은 "무엇이 우리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민족의 공존 공영을 위해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종구 선생

살아 있는 정신을 꿈꾸며…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차라리 걷는 게 나을 뻔했던 서울의 교통체증 때문인지 하종구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약속 장소에서 선생을 기다리며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도 축 처져 있었다. 이런 나를 선생은 반갑게 맞아 주었고, 우린 선생이 사는 조그마한 지하 연립주택으로 갔다. 우리의 만남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결국 3시간 3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꽤 긴 시간 앉아 있어서 인지 저려오던 다리를 두드리며 선생의 집을 나설 땐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이 앉아 있던 선생의 모습과 평소 조금의 불편함에도 짜증과 어색함으로 반응하던 내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하종구 선생은 1922년 7월 22일 경남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에서 출생하셨다. 선생은 함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7살 때 일제 시대 당시 영창학교라 불리던 서울 YMCA회관 야간 상과에 입학했으나 어려웠던 경제사정으로 1학년만 마치고 중퇴했다. 이것이 선생의 학력 전부이다.

선생은 20살 되던 해에 중국 연변으로 가서 연길시 현공소(오늘의 군청) 임시직 공무원으로 취업하였고, 21살 때 국가공무원 자격증을 획득하여 연길시 세연국(세무소)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 때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뒤흔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연히 보게된 사형 집행의 광경이다. 선생은 연길현 명월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명월구는 '조선인 특설부대'(당시의 독립군, 김일성 부대에서 일본군대와 전투를 하다 부상당해 생포된 자, 자수한 사람, 이탈분자)가 있는 곳이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오늘 오후 3시에 비적(도적) 5명을 사형 집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기 바란다.'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 선생도 사형 장소인 연병장에 구경을 가셨다고 한다. 연병장엔 십자가 모양으로 말뚝 5개가 박혀 있었고, 거기엔 머리에 용시를 뒤집어 쓴 5명의 조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곤 순식간에 죄수 한 명당 세 명의 군인들이 대검으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것이었다. 하숙집으로 와서 선생은 밤새도록 '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 가는가?'를 생각하였고, 그 때 처음으로 민족 정신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2년 후 태평양전쟁이 열기를 더해가자 일제의 강제 동원 명령을 받게 되었다. '왜 일제를 위해 전쟁에 끌려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야밤을 틈타 고향으로 도주하였고, 곧장 지리산으로 발길을 향하였다. 당시 지리산에는 선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특히 그 곳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던 조카 하준수(남도부라는 이름으로 불림)를 만나게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내려가 조카 하준수와 함께 '국군함양준비대'를 만들었고,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일제의 패망으로 공백 상태가 되어 버린 경찰서, 군청 등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나서 군민대회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식으로 서장과 군수 선거를 하였고, 선거를 통해 뽑혀진 민선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다시 국군준비대 일을 맡아 하는데, '모든 정권 형태는 미군이 접수한다.'라는 미국 하지 장군의 포고령이 떨어지게 되고, 선생은 미군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된다. 또

다시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 입각한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유엔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가 떠 넘겨지게 된다. 당연히 민중들은 분노하였고, '3상 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라.'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라.'는 구호 속에 맹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도피생활 중에서도 열심히 투쟁하던 선생은 46년 10월 대구인민항쟁 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구속되어 한 달간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선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지리산 천왕봉에 모여 경찰서를 접수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찰이 이 사실을 사전 입수하여 천왕봉 주위를 포위하며 올라오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작 엽총 7자루뿐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기지를 발휘하여 공포탄만으로 위기를 넘기게 된다. 신념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48년 10월 19일 여순 14연대가 지리산에 들어오면서 빨치산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0월 25일 지리산에서 처음으로 전투가 시작된 후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48년 지리산의 겨울은 추운 날씨에 무기와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약 2천 명에 이르던 인원은 겨울이 끝나자 4백 명으로 줄게 되었다. 그러던 중 49년 4월에 이현상(조선인민유격대 이현상부대 사령관)으로부터 소환 명령이 왔다.

"우리가 49년을 이 곳에서 넘기면 전멸된다. 왜냐하면 탄약이 없고, 인원이 없고, 자금이 없다. 계속 있으면 꼼짝없이 죽는다. 북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당시 선생은 지리산에서 '녹 동지'라 불리고 있었는데, '녹 동지가 서울로 가라. 남로당 중앙위원회가 서울에서 있는데, 지리산의 상황을 보고

하고 편지를 낭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생은 지리산에 있는 여러 동지들을 생각하며 서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생사를 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된다. 서울에서 연락원의 배신으로 시경사찰과 분실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50년 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에서 활동하면 3~5년 정도의 형량만을 살지만 당시 선생은 지리산에서 무장투쟁을 했기에 사형이 유력하였다. 역시나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고, 7월 3일 언도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나날들이 흘러가던 중 6월 28일 구치소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시청에 가보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벌써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곳에서 선생은 조선인민의용군 본부 무기과장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마음은 늘 지리산에 있었다. 몸은 편했으나 지리산의 동지들이, 그 치열함이 계속 떠올랐다. 결국 사표를 내고, 이현상 부대를 찾아 길을 떠나 낙동강에서 옛 동지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부대는 많은 전과를 올리게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창녕에서 미국 기갑부대 연대를 박종화 참모장의 지휘로 20명이 1인당 수류탄 5개씩을 가지고 들어가 연대장을 죽이고 부대를 거의 전멸시킨 것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이현상 사령관의 엄한 지시가 잊혀지지 않는다.

"경찰, 군인은 쏘지 말라.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오로지 미국이다."

51년 빨치산의 투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8월 10일 협천군 가회지서 전투를 통해 접수한 탄환 20만 발을 가지고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선생은 지리산에서 전투를 하던 중 탄약 1발에 몸에 4개의 구멍이 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눈을 먹으면서 12일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출되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부상당한 몸을 이끌

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휴전이 체결되었고, 일단은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약 일년간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서울로 올라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빨치산에서 체득한 삶에 대한 성실함 덕분인지 어느 정도 돈을 모아 가마니 장사를 시작하며 여러 계획을 세우시던 중 예전에 부하로 있던 사람의 고발로 다시 성동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빨치산 출신들 중 변절한 사람들이 경찰의 앞잡이로 사찰요원이 되어 동지들을 팔아 넘겼는데 선생도 그렇게 잡힌 것이었다.

경찰서에서는 무수한 고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집채만한 셰퍼트가 선생을 물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답변만을 말하였고, 마침내 담당형사는 "당신이 이겼소. 증거가 없소."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향에서는 '하종구'라는 이름으로 지은 죄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3심까지 가는 판결 끝에 결국 4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선생의 순발력과 인내가 위기를 넘긴 것이다.

4년 간의 형을 모두 마치기 며칠 전부터 선생은 계속되는 전향서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는 밖으로 나와서도 전향 요구에 경찰서를 찾곤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모든 제의를 거부하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감시와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선생은 자신에게 가족이 있음을 매우 감사해 했지만, 21살 때 결혼한 부인(이진수)에게 미안해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은 고생만 했다."

집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속엔 선생의 말이 계속 메아리치고 있었다.

"정신만은 살아 있어야 한다."

전향서를 거부하면서 선생의 삶은 많은 제약으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선생은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조국을 배신하지 말자.'는 꼿꼿한 정신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다.

▌최하종 선생

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하종 선생은 27년 함경북도 성진군(지금의 김책시)에서 태어났다. 8대 종손으로 1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선생은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선생의 집안은 대대로 지방의 소지주로 아버지 최주활은 5백 석을 수확할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은 36년 학동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 4학년 때 폐 임파선염을 앓아 요양을 하기 위해 쉴 때까지 학교를 다녔다.

요양 기간에 가족 모두가 간도 용정으로 이사하였다. 간도로 이주한 것은 여러 가지 집안 사정 중에서도 숙부의 사정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숙부인 최주석은 적색농민조합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을 사시다가 37년 출옥하였다. 그러나 그 해 '보호관찰령'이 발효되면서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야 했고 형사들이 항상 집으로 찾아와 감시를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 숙부의 동생인 최주종도 광주학생사건과 관련, 무기정학을 당하고 만주의 용정 동흥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가문에 숙부되는 분들이 10여 명 계셨는데 그 중에 항일운동 안 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 내력 때문인지 저도 유치장 콩밥을 안 먹을 래야 안 먹을 수 없었나 봅니다."

용정에서 선생은 홍중 국민우급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하였고, 41년에는 신경중학교에 입학하였다. 45년 졸업 후 선생은 할빈 공업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해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았다.

다음해인 46년 선생은 함경북도 도당 조직부장으로 있던 숙부의 영향으로 청진으로 돌아왔고, 그 곳에서 도 민청 선전부원과 학생부지도원으로 지내다 47년 9월 김일성대학 공학부 금속공학과에 입학을 했다. 그리고 대학 3학년을 마치고 황해제철소에서 생산실습을 하던 중에 전쟁을 맞았다. 바로 자원 입대를 한 선생에게 입당 1년 이상된 자, 대학 2학년 이상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김책정치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 상위로 임관, 전선사령부 직속 제2보충연대 민청 지도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 곳에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다가 전쟁 막바지 1년여 동안은 보병 76연대 선동원으로 복무하면서 전투에 참가한다.

정전 후인 54년 6월 조선인민 후방군관학교 사회과학부 교원으로 발령 받은 선생은 그곳에서 소련공산당 역사를 강의하였다. 56년 전역한 뒤, 김책공업대학에 복교하고 그 해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다. 57년 국가계획위원회 무역계획국 계획원으로 근무하였고 12월에는 상업성 요원으로 근무하던 김재숙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61년까지 2남 1녀를 두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다.

62년 선생은 남으로 내려왔다. 당시 육군 8사단장으로서 5·16주체세력이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으로 있던 숙부 최주종을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해보라는 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62년 3월 4일, 서울에 도착한 선생은 숙부의 장모댁을 방문하여 전방 사단관사에 있는 숙부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뒤, 영등포에 살고 있던 자형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새벽 자형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숙부의 신고로 출동한 특무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무기가 선고되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됨으로써 길고 긴 감옥 생활에 들어

간다. 이후 36년간의 감옥 생활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간수들에게 있어 공산주의자는 전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간수들은 흔히 '너희는 사형수가 아니어서 지금 당장 죽일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군집성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억지로 수십 년 간 떼어 놓는 것이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것은 비도덕이며 패륜일 뿐입니다."

'애국적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라며 수없이 자행된 고문과 구타, 그리고 언어능력마저 잃게 만드는 수십 년간의 독거 생활, 그리고 숙부의 회유…, 이 모든 것을 선생은 이겨냈다. 선생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야 할 사랑하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선생은 자신에게 있어 사상이란 '아주 자연스러운 세례와 같았다.'라고 말한다.

"나는 학습과정을 통해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실 생활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보면서 사회주의의 대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백성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바로 인민적 나라이지요. 지금의 남한 사회에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이것이 백성이 억울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선생은 98년 3월 13일 김인수 선생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갱생보호소로 보내졌고, 이 소식을 접한 송경영 신부와 민가협 회원들이 급히 달려가 데리고 오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지금은 낙성대에서 지내고 있다. 이곳에서 7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에 나가고 1달에 2번 정도 강연을 하는 등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동안 생활하면서 남한사회에 대해 느꼈던 점을 물어보자 며칠 전 '고난모임' 소식지에 보낸 글이 있다며 선생의 글을 읽어 주었다.

"제가 오랜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생소한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일은 남쪽사회가 북쪽의 제도나 실상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이었으며 더구나 왜곡된 일설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기려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공일변도의 이 땅의 사회적 분위기와 공사 교육과 언론의 부추김을 생각하면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쪽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사실대로 알며, 이해하며, 또 익숙해지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끓는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또 안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기.'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고 있는 이 말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조창손 선생

다하지 못한 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금강산, 가면 뭐 하느냐? 땅만 보고 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고향에는 가보고 싶지만 가봤자 사람 구경도 못할 바에야 그리움만 더할 뿐이라고 애써 금강산 여행을 외면하던 일이 불과 몇 달 전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그 고향에 가게 되었다. 고향 산천의 정든 품안에서 그리운 사람들의 단내 나는 입김을 서로 나누며, 그 동안 헤어져 살아온 세월들을 아쉬워하지 않으며 넉넉히 풀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꿈만 같다.

"담담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 날이 오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자라서 마흔도 넘었겠죠? "

조창손 선생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남북합의'로, 9월에 다른 비전향 장기수들과 함께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에 가게 되었다. 그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답은 담담하다고 하시지만, 그 음성엔 이미 감추지 못하는 기쁨이 배어 있었다.

62년 3월 28일 남파되어 동해로 들어오다 붙잡힐 당시 그의 나이 32세. 그의 등뒤엔 결혼한 지 4년 된 아직도 수줍음 많은 아내와 아직 어려 헤어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39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이제 72세가 되었다.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교인들과 같이 장기수 선생들이 모여 사는 낙성대와 봉천동을 방문할 때마다 선생은 우리들 손을 꼭 잡고 선한 웃음을 지으셨다. 도착할 즈음해서 문밖에 먼저 나와 기다리며 우리를 맞았고, 헤어질 때면 한참을 서서 바라보곤 했다. 오랫동안 꼭 붙잡던 두 손의 여운이 돌아오는 우리의 발길을 오래 잡아끌곤 했다.

감옥에서 나온 지 10년이 되어 가는 그는 다행히 감옥에서 앓던 위병도 어지간히 나아 늘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 일을 하기도 하고, 포장육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챙겨 왔다. 선생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저 선생의 선한 눈을 바라보며 그 눈 속 깊이깊이 가라앉아 있는 아픔과 그리움, 선생이 평생을 두고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늠할 뿐이다. 그리고 선생의 삶을 통해 아픈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바라보게 된다.

조창손 선생은 29년 8월 황해도 장연군 후남면 삼가리에서 조기현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가정이 워낙 어려워 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당시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일본말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학교 가는 것을 엄격히 금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간의 재산을 자신의 병 뒷바라지로 다 집어삼킨 아버지는 선생의 나이 9살에 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와 4형제를 남겨놓은 채 눈을 감았다. 더욱 어려워진 살림에 4형제는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 선생은 과수 농사를 짓는 고모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 생각한 선생은 몽금포에서 어업을 하는 사촌 매형에게 가서 일을 도와 주면서 선박일을 배웠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다. 몽금포 앞 바다에서 남북 양쪽 군대가 맞붙는 것을 보아 온 선생은 조국을 위해 나서야 된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20대 초반에 인민군에 입대하였다. 주로 후방 운송부대에서 근

무하다가 2차 남진 때는 강원도 인제, 양구 등지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선생은 이 전투에서 엉덩이와 무릎 관절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후방으로 이송, 독립 20여단에서 해안방위를 맡다 6년 2개월의 인민군 생활을 마치게 된다.

제대한 선생은 장연군 농기계 임경소에서 트랙터 조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 선생이 하고 싶은 일은 선박기관 일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은 강령군 부포 수산 사업소 보위성원으로 자원해서 해상경비 일을 맡았다. 그 무렵 29살의 적령기가 된 선생은 결혼도 하고, 마침 수산성 중앙 간부양성소 기관반에서 1년 동안 선박기관 일을 배워 강령군 부포 수산사업소 운반선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선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모양새를 하나하나 꾸려가고 있었다. 자립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배우고 싶어하던 선박기술을 익혀 기관장이 되기도 했고, 믿고 의지하며 힘든 삶을 함께 살아갈 동지,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품에 넉넉히 안기는 사랑스런 아이들도 둘이나 얻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은 선생을 그런 소박한 행복에 잠겨 있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62년 3월 28일, 공작원을 접선 장소로 안내하는 일을 맡아 다른 세 명과 함께 공작선을 타고 울산 근해로 상륙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방첩대, 엄청난 무력이 그들 선박에 조명탄을 터뜨리며 집중사격을 해 댔다. 발각된 것이다. 선생보다 앞서 남파된 공작원이 가족을 만나러 갔다오다가 붙잡혀 다음 접선 장소를 알려 줘 버린 것이다.

배는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포탄이 명중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육중한 해군 함정과 경비함이 배 주위를 돌면서 에워 쌓았다. 위기에 처한 그들 일행은 2인용 보트를 입으로 불어 내려놓고 4명이 겨우겨우 포위망을 뚫고 육지로 올라갔다. 보트가 몇 차례 뒤집히면서 옷이며 식량, 돈 등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젖은 옷을 짜서 입고 포항 부근의 야산을 나무꾼으로 위장하여 북을 향하여 걸었다. 마침 4월 5일 식목일이라 경찰과 마을주민이 대거 동원되어 산을 수색하였다.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신발도 못 신은 채였다. 수색망을 뚫고 산을 계속 헤매다 보니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디기가 힘들었다. 끝내 견디지 못한 선장은 어떻게든 민가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어 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일행의 행색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이장에게 신고해서 결국 선장은 수류탄으로 자폭하고(이때 선장은 복부에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치료를 받고 함께 감옥 생활을 하였다.), 선생을 포함한 세 명은 다시 산 속으로 피신하였다. 낮에는 짚으로 짚신을 삼고 밤엔 산길을 걸었다. 버들가지와 진달래꽃을 뜯어먹으며 지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고 있는데 비오는 어느 날, 물을 대러 나온 농민에게 들켜 신고를 받고 즉시 동원된 수색대에 붙잡혔다. 62년 8월 군법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곤 긴긴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긴 감옥 생활 동안 건강했던 몸도 차츰 병을 얻었다. 위장병, 고혈압, 결핵 등. 급기야는 위출혈로 병사(病舍)로 보내졌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못 되었다. 다른 중환자들이 있어서 그 곳에서 선생은 오히려 그들 시중을 들어야 했다. 그 곳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전방을 요구하면 전향하면 나오게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전향, 지금도 감옥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악몽과도 같이 선생을 가위눌리게 하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다. 간간이, 그러나 공공연히 행해지던 전향 강요는 73년에 전향 공작반이 생기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향 공작반은 극악한 범죄자(강간, 살인, 깡패들)들 3명으로 구성해서 이들이 있는 사방 한쪽 방을 내 주어 수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향을 강요하도록 했다. 전향 공작반의 범죄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술, 담배를 마음대로 하면서 이 방 저 방 다

니며 사정없이 고문을 해댔다. 그 고문에 못 이겨 전향을 한 분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폭력과 고문에 못 이겨 끝내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았다. 그러던 중 한 분(최석희 선생)이 깡패방에서 맞아 죽는 일이 생겼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구타는 중지했지만 고문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더 악랄하게 바뀌어 갔다. 청소라는 명분을 달아 사방에 배치해 놓고 바늘을 여러 개 실로 묶어 가지고 다니면서 방에서나 운동장에 쫓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찔렀다. 이런 사실들이 국내외 인권단체에 알려지면서 공작반 성원들을 모두 인사이동 시키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선생은 '전향'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선생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분단된 조국 현실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신껏 했다. 그런데 전향이라니.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전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은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긴 시간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없었다. 더욱이 모든 가족이 북한에 있는 선생은 양심을 어그러뜨리고 나간다고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곳에서 맞아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팔 수는 없었다.

그렇게 견딘 선생은 91년 12월 24일, 두어 달 모자란 30년의 감옥 생활을 접고 세상에 나왔다. 워낙 건강이 좋지 않아 병 보석으로 다른 이들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솔직히 선생에게는 감옥을 나온다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나와 봐야 반가이 맞아 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병든 몸을 편히 뉘일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선생은 자기를 생각해서 나가라고 청하는 친구들이 밉기까지 했다.

감옥을 나와서는 아산 요양소에 있었다. 그러나 그 곳 역시 큰 감옥과 같았다. 자유로이 다닐 수도 없었다. 다행히도 그 곳 원장과 식구들이 배려해 주어서 다닐 수는 있었지만 제약이 많았다. 그 곳에서 한 성공회 신부의 책임 아래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그 때부터 이 곳 '우리 탕 제원'에 오기 전까지 봉천동에서 김중종, 이종환 선생 등과 같이 지내거나 혼자 살기도 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던 한 젊은 청년이었던 조창손 선생,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 고향에 가면 선생은 제일 먼저 막내 동생을 찾아볼 것이다. 선생이 이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동생은 군에 가 있었다. 늘 몸이 약하였고, 특히 혈압이 높았다. 선생이 안정된 자리에 있어서 충분히 동생을 돌볼 수 있었으나 바빠서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한 게 내내 맘에 걸린다. 그래서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 온다. 눈물 없이 동생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가 살아 있다면, 그래서 다하지 못한 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향으로 귀환을 앞두고 선생은 이런 생각에 젖는다.

선생은 소위 간첩이었다. 명확히 하면 간첩을 실어 나르는 간첩선의 부기관장이었다. 간첩이란 초등학생 학습 국어사전에 '서로 맞서고 있는 나라의 사정을 알아내거나, 자기 나라 비밀을 적에게 알리는 사람. 스파이 · 첩자'라고 되어 있다. 6 · 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며칠 후 60대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복받치는 오열을 터뜨리는 얼굴을 신문에서 보았다. 남편은 며칠 간 소식도 없이 어디를 갔다오더니 잠깐 집에 들러 중요한 일을 맡아 어디 잠깐 다녀오마하며 나갔는데 몇 십 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남쪽 간첩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 6 · 15정상회담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하소연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몇 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못하고 가슴 앓아온 그의 아픔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이런 기사도 보았다. 남한의 어선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남북의 해양 경계선을 넘어 북의 영해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북한 해양경찰의 안내를 받고 경계선을 넘어 다시 돌아왔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서로 맞서고 있거나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으면 간첩이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한민족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불행한 삶을,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간첩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청춘을 유린하는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선생은 우리 앞에 아픈 과거의 역사로 남아 있다. 우리는 아무도 선생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생의 삶을 유린한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갚아 가는 길이기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물려 줄 수는 없다. 아이들의 마음 밑바닥에 터무니없는 불안과 미움, 억압을 심어 줄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그 화해와 평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그 길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 부디 고향에 돌아가는 선생이 보고 싶은 가족들 품에서, 낯익은 고향 산천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을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안학섭 선생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기쁜 소식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늦은 소식이기도 하다. 신문에 난 발표를 보고 선생에게 전화를 했다.

"저는 그냥 남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다거나 가족들이 여기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해야 할 일이 있어 여기에 남아 있겠다고 단호히 말하는데 그 해야할 일이란 무엇일까?

안학섭 선생은 30년 4월 강화군 하점면에서 5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45년 해방되던 해 15세의 늦은 나이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중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하고 48년 개성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다. 개성에서 고학하고 있던 이 때에 전쟁을 맞게 되고, 그 해 7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 강화도로 돌아온 선생은 민청활동을 한다. 해방을 맞아 일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일파들이 미군의 힘을

업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선생은 바로 민청활동을 통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군에 밀린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인민군에 합류하여 선생도 북으로 올라간다. 북에서 인민군에 지원했지만 몸이 약하여 탈락하자 군에서 환자 수송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다 정치학원에 들어가 역사, 철학, 경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선생의 사회의식은 더욱 분명해지고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에 정치학원 시절은 고단했다. 황해도 봉산 산골짜기에서 20~30명씩 조를 짜서 공부하며 생활했다.

그 후 51년 개풍군 신해방지구 인민위원회 사회보장과에서 일을 하다, 52년 8월 다시 개성으로 소환된다. 이 때 개성으로 소환된 것은 유격대 훈련을 받기 위해서였다. 유격대 훈련을 마친 대원(소빨치산)들이 52년 10월 6명이 한 조가 되어 남으로 넘어오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지하조직(당)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그들은 가능한 한 전투를 피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들이 도착해야 할 곳은 울진 청옥산이라고만 들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려오다 설악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매복에 걸려 세 명을 잃고, 남은 세 명이 내려오다 다시 한 명을 잃고, 선생과 다른 한 명, 둘이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나마도 같이 내려오다 기습을 당해 1선, 2선, 3선, 4선까지 만날 약속을 하고 각각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가보면 없고 항상 그 앞에 추격이 가해져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혼자 행동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매복에 걸려 잡혔다.(그 친구는 알고 보니 자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붙잡힌 선생은 53년 4월 26일 국군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대구 중앙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화도에서 민청활동을 한 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국방경비법 32조에 걸리고, 북에서 정치학교 다닌 것이 국방경비법 33조에 걸려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53년 11월 21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법은 단심이었기에 충분히 재심이 가능했다. 더욱이 돈을 찔러 주면 형이 깎이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신념대로 하다 잡힌 일을 가지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56년부터는 전향을 안 하면 재심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때 선생의 나이 23세. 23세에 시작한 감옥 생활은 그 이후 43년을 보내고서, 95년 그의 나이 66세가 되어서야 끝이 날 수 있었다. 감옥 안에서 선생은 많은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를 살아 냈다.

예순이 넘은 선생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몸과 눈에서는 곧은 의지와 굽힐 수 없는 정기가 느껴진다. 선생은 과거의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고, 자신을 간첩죄로 몰았던 국방경비법이 아무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법이었음을 알고 92년 헌법소원을 하고 국방경비법 재심을 신청했다. 그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생은 적당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을 간첩으로 내몬 국방경비법이 근거가 없는 법이었음을 밝히는 것은 선생의 동강난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긋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기에. 그래야만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분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향. 그것은 선생이 감옥 안에서 맞게 된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선생의 기억에 의하면 전향 강요는 57년 4월 10일에 시작되었다. 전향을 거부한 사람들이 대구형무소에만 367명이 있었다. 불치옥(불치란 불치인류의 줄임말로 사람 축에 들지 못함이란 뜻이다.)이라고 한 방에 20명 정도를 넣어서, 사람이 누워도 한 방, 앉아도 한 방, 서도 한 방이었다. 겨드랑이 사이사이로 다리를 뻗고 칼잠을 자야 했다. 나무통 변기 하나에 20여 명이 하루종일 일을 보아

야 했다. 당시는 재생담요를 덮었는데, 어찌나 먼지가 나는지, 아무리 곱게 개켜도 바닥에 먼지가 2미리 정도는 쌓일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열지 못하게 했다.

69년도였을 게다. 교무과 간수와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전향을 강요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빨갱이 새끼, 대가리에서 피를 쪽쪽 빨아먹겠다."고 악을 쓰면서 일흔이 넘은 노인을 무릎 꿇리고 구둣발로 얼굴을 긁어 댔다. 다음에 선생을 부르기에 선생은 들어서자마자 간수를 메어쳐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 바람에 몽둥이로 매를 맞아 3주 동안은 꼼짝도 못하였다. 70년 이후로는 계속 독방에 가두었다. 면회도 안 되고 운동, 독서, 목욕도 못하게 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독방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야만 했다.

73년 7월 전향 전담반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전향공작이 시작되었다. 전향 공작반은 목사, 특무대, 경찰, 심리학 공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처음에는 감언이설로 구슬리다가 안되면 폭력을 휘둘렀다. 73년 광주에 있을 때, 11월 13일에 테러를 시작했다. 살인 강도 무기수들을 시켜 비전향 장기수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갖가지 고문을 했다. 물고문, 고춧가루 물고문, 한겨울에 마룻바닥에 물을 뿌려 얼게 한 후 발가벗겨 앉히고 정수리에 얼음물을 떨어뜨리는 고문 등. 그렇게 74년 봄까지 고문을 하다가 서준식 가족들에게 고문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여론이 일면서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문으로 많은 동지들이 죽어갔다. 그는 그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에 관한 사연을 밝혔다.

이선우. 그는 통방했다고 아침 일찍 끌려가서 깜깜한 저녁이 되어서야 혓바닥만 빼고 온몸이 시꺼매져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병이 들어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해 몸에 약을 발라 멍든 흉터를 없앴다.

20년형을 살고 만기를 열흘 앞둔 어느 충북 사람은 동생이 면회 와서 전향 안 하면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정신 착란을 일으켜 목 동맥을 자르고 죽었다.

김규호. 그는 전남 강진이 고향인데 와세다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김일성대학 철학과에서 가르치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정치경제학독본'을 말로 얘기하면서 해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전향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무지하게 때렸다. 신경쇠약에 걸려 약으로 지탱하던 사람인데, 집에서 온 약을 주지 않자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신춘복. 그는 하도 맞아서 척추에 고름이 잡히고 바싹 말랐는데, 자결했다.

이런 고문에 못 이겨 전향을 하더라도 내보내지 않고 10여 년을 가두어 두었다.

감옥 생활도 감옥 밖의 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전향 공작으로 인한 테러가 세상에 알려지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되면서 여론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80년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옥에서도 생활개선 투쟁도 하게 되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내걸고 투쟁하기도 하였다. 전에는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책 권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는 권수와 종류의 제한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종이나 펜을 주지 않았는데 집필 허가가 났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선생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 얻은 진리다. 감옥에서는 연필 한 자루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랜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고난모임 소식지를 받아 보는 것도 그랬다. 선생을 통해 처음으로 고난 소식지가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싸움이 필요했다. 이제 선생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침으로 삼아 살고 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 세력이 뭉쳐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95년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선생의 느낌은 좁은 형무소에서 좀더 넓은 형무소로 나온 형상이나 다름없었다. 보안관찰법이 있어 동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인터뷰도 못하게 하고 3개월마다 생활을 보고해야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지들까지 늘 감시당하며 사는 것은 선생을 견딜 수 없게 했다. 결국 집을 떠나 인권운동을 하는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 그 집에서 기거를 하다가 '우리 탕제원'에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선생은 오늘도 싸우고 있다. 선생을 간첩으로 둘러씌워 43년을 감옥살게 한 국방경비법이 근거가 없는 법이며, 그 법을 근거로 감옥에서 나온 자신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한 보안관찰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그리고 그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음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선생은 울진 청옥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선생은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아직 어긋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이 사회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 사회에서 지금 자신의 임무를 찾아냈다.

"이제 내 바람은 국가보안법 없애고, 양심수 전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과 통일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장 호 선생

그 시간은 멀지 않습니다

장호 선생은 20년 11월 29일 7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보성고보 3학년 때 선생은 문득 답답한 생각이 들어 세상견문이나 넓히자는 생각으로 중퇴를 결심한 뒤 해안선을 따라 부산과 목포, 원산, 청진 등 한반도의 주요 항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선생이 이처럼 항구를 택한 것은 마포포구에서 장사를 하던 집안의 영향을 받아 바다를 동경했었기 때문이란다. 막노동으로 숙식과 용돈을 해결하던 청년이었던 선생은 더 나아가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도문과 통화 장춘, 북경, 더 나아가 일본까지 두루 다니면서 세상구경을 통해 식민지청년으로서 억압된 마음을 풀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세상을 주유하던 선생은 광복을 아오지탄광에서 맞이하였다. 소식을 접한 선생은 즉시 고향인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소한 최익한 등 장안파가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조국의 건설을 위해 일한다는 기쁨도 잠시,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의 탄압이 시작되고 설상가상으로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남한의 사회주의세력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선생은 45

년 9월 친구 세 명과 함께 월북하였고 아직 체계가 잡히기 전이었던 북조선에서 강원도 당 조직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48년 말, 철원군당에서 일하던 선생은 조선인민유격대 제10지대에 공작원으로 선발돼 5명의 동료와 함께 강원도 화천, 양양 지역에 투입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계속 선무활동을 벌이던 선생은 영주에서 무정 장군의 인민군 2사단과 합류하게 된다. 이어 선생은 해방일보사 논설부 기자로 차출돼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해방직후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였던 해방일보를 서울 점령 후 복간시켰습니다. 시청 뒤 구 서울신문 사옥에 해방일보 사옥이 마련됐는데, 저는 어떤 연줄이나 신문사 경력도 없었고 학력도 별거 없었지만 꾸준히 남쪽 주민들과 접촉하며 선무 활동을 했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로가 바뀐 선생은 휴전 뒤 잠시 조소문화협회 강원도위원회에서 일하다가 55년 말 노동신문 기자에 다시 발탁되었다. 노동신문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던 선생은 58년 초에 다시 당중앙위원회의 소환을 받게 된다. 공작원으로 내려가라는 것이다. 당시 선생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 형제 대부분이 월북해 함께 지내고 있던 처지였고 본인은 동거녀만 있을 뿐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다. 유격대로 오랜 시간 고생했던 처지에서 또다시 험난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보통 사람이라면 낙담했을 법도 하지만 선생은 의외로 담담한 심정이었다고 한다. 오히려 자신이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는 정치공작원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에 자부심마저 들었다. 이미 남파공작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험한 선생의 이같은 대답이 솔직히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아 정말 그런 심정이었는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소환장이 일방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일꾼들이 넌지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전에 마련됩니다. 이때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저는 제가 선발됐다는 자부심과 만족감 때문에 단 한번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은 58년 7월 해상으로 남파돼 서해 목포 부근 다도해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게 된다. 당시 선생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학생을 접촉해 통일분위기를 고양시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며칠 서울에 머물며 낙원동 고모집에 하숙 중인 '연세대생과 접촉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려던 선생은 문산 부근 수풀 속에 은신해 있다가 해병대 수색조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 해 9월 무기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생은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저는 대학생 한 명 접촉한 것에 불과하니까 사실 별거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취조한 사람들은 전부 이근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전기고문까지 동원됐는데요, 사실 이근안이 우연히 전기고문기술을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 당시 경찰들은 일본경찰에게 배워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비롯한 온갖 고문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0대 후반에 감옥생활을 시작한 선생은 70대가 된 91년 2월에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당시 출소조건은 형확정 후 30년 이상 복역한 사람으로 나이가 70세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조건에 부합된 비전향 장기수는 92명 가운데 선생을 비롯해 5명이었다. 선생으로서는 33년만의 첫 외출이었던 것이다.

출소 후 선생은 경기도 이천의 누이동생 농장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주택노인들에게 주는 융자금을 모아 한백의 집 보증금을 마련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월 20만원의 보조금에 뜻 있는 이들의 후원을 보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구차해 보일 수도 있는 이같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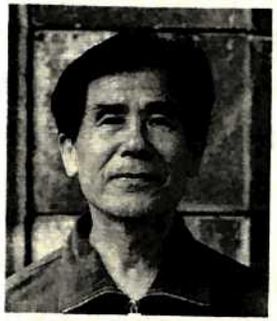
선생의 눈은 여전히 신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는 평생 조국의 평화통일을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씩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양적인 변화라면 결국 일정단계에서 질적인 변화로 비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은 멀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의 예언(?)대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었고, 조국통일을 향한 질적인 도약이 시작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안영기 선생

공부하고 싶어 북으로 갔지요



경북 선산에서 안대관의 둘째아들로 29년 6월 19일에 태어난 안영기 선생. 선생의 아버지는 제재공으로 일하였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일터를 좇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자랐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선생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직업훈련과정인 국민학교 고등과에 입학했으나 성적이 우수해 도지사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금융조합에 취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잠시 진로문제로 방황하다가 초등교원 양성소에 입학, 3개월의 교육을 거쳐 경남 밀양군 안법국민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좀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에 다시 경남상고에 편입해 한국은행 입사시험에 합격하게된다. 당시 전국에서 뽑힌 우수인재들과 함께 한국은행 본점에 배치된 선생은 한국은행 근무 1년 반만에 한국전쟁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난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게된 선생은 고민 끝에 북조선행을 결심한다. 좀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었는데, 당시 북조선에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살아온 선생으로서는 의용군 지원이 그야말로 큰 결단이었지만 결국 휴전 때까지 3년 간 복무한 뒤 인민군 상사로 제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원대로 김책공대 건축공학부에 입학하였고 58년 7월 평양시 건설총국 지도원으로 배치 받아 평양시 도시건설작업에 나서게 되며 이듬해에는 건축기사 자격증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선생이 직접 시공을 지도한 건물 가운데는 옥류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당시를 뿌듯하게 회상하였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건설사업에 종사하던 선생이 소환을 받은 것은 61년 4월. 두 달 뒤 선생은 4명이 한 조가 돼 설악산 대청봉을 통해 남파된다. 이 때 부여받은 임무는 3개월 단기공작으로 루트개척과 가족, 친척 포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행은 8월 12일 서울 강릉 국도를 횡단하던 중 매복에 걸려 교전을 벌이게 되고 선생은 총상을 입고 기진한 상태에서 체포돼 강원도립병원에서 창자를 30센티미터나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 후 선생은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으나 무기형으로 확정돼 37년 간 복역하다가 지난해 2월 25일 출소하였다. 이 기나긴 복역기간 중 선생은 전향을 했다가 취소되는 기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73년에 전향작업이 집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달 반 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강제전향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은 아니었죠. 하지만 말로는 전향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옥내에서 조직화사업을 벌여 다시 기소됐고 결국 무기 구형에 5년형을 받아 전향이 취소됐습니다."

선생에게는 누구보다도 손님이 많은 편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도 많지만 수준급인 그의 침 솜씨가 아름아름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제가 침을 시작한지 30년이 됐습니다. 형이 선고된 뒤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자 많은 동지들을 만났는데 건강이 엉망이어서 소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식사까지 대신 먹고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못 하나를 열흘간 다듬어 침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동지뿐 아니라 일반수와 직원들까지 제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빨갱이라며 욕하던 사람들도 제 정성에 감동을 받아 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더군요. 여기서 작지만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선생의 삶은 이미 체질화해 있는 것 같다. 이 곳 한백의 집에 와서도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골목청소를 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선생의 봉사에 감동한 이웃 주민들이 며칠 전에는 사과 한 상자를 사들고 왔단다.

선생은 지난 73년에 이미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었지만 북에 남아있는 아내와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고 한다. 남파 당시 3살과 3개월에 불과했던 두 아이는 이미 불혹의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의 소식은 전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사회가 요구하는 일꾼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단다.

인터뷰를 마치며 선생은 그래도 2003년쯤에는 남북 자유왕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낙관적 기대를 펼쳐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선생 본인도 꿈에 그리던 가족 품에 안기게 되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이처럼 험난하기도 하지만 때가 이르면 도둑처럼 임하는 모양이다.

▌김은환 선생

통일을 위해 일생 바친 통일일꾼

김은환 선생이 오랜 감옥생활 끝에 출소하게 됐을 때 공안검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공산주의가 좋으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좋으냐?"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왜정시대 일본놈들이 항일투사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했습니다. 해방 후 분단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우리 스스로 통일하자.'면서 '소련놈 나가고 미국놈도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로지 통일을 염원하며 일했습니다."

김은환 선생은 30년 7월 12일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 지금의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8남매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증조부 때부터 능참봉으로 일해온 김씨 집안은 항상 어렵게 생활해 국민학교 시절 6년간 단 한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할 정도였다. 간신히 덕수상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빚 때문에 신문사 보급소에 잡혀 있다가 한국전쟁을 만나 비로소 빚의 압박에서 해방됐다고 한다.

전쟁 직후 평양이 곧 함락된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다가 포소리를 듣고서야 피난가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한강다리가 끊어진 뒤였다. 이때 선생을 비롯해 이승만 정부에 실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반발심리로 의용군에 대거 입대했다. 56년에 제대한 선생은 김책공대 전기공

학부에 입학해 60년에 졸업한 뒤 조선영화예술촬영소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69년에 공작원으로 차출됐다.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그 뒷수습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왔다. 선생은 체포된 뒤 자신은 오로지 통일을 위해 일할 뿐 간첩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공작원 교육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뿐이었다는 것이 선생의 주장이다.

"내가 간첩입니까?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한 일이 간첩입니까? 통일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하다가 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선생의 이같은 '원칙주의'는 30년의 옥살이를 거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흡수통일이든 뭐든 현재 우리 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흡수통일하려다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 모두가 망합니다. 우리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통일이 된 뒤에 우리 백성들이 체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은 출소 후 자신에 대해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통일일꾼'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에 매우 고무됐고 어려운 시절이 모두 보상되는 것 같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지나간 옥살이 기간동안 고생이 너무 심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고, 아니 이미 잊었다고 말한다.

"과거에 제가 어떤 폭력과 탄압을 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굳이 아픈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민족 모두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통일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하게 나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통일일꾼이 해야할 일이고, 가져야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은 이같은 신념을 직접 실천해 보였다. 선생의 부모와 형님은 한국전쟁 당시 형님이 부역했다는 이유로 남측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한다. 선생은 출소 직후 묘소는 커녕 아무런 흔적도 없는 텃밭으로 변한 학살장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다 못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러나 선생은 이 현장에 따라온 텔레비전 기자에게 촬영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자신의 울음이 학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보도돼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뿐, 결코 학살자를 찾아내 복수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선생의 눈빛에는 회한의 감정이 어려 있었다.

"다 역사적인 희생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의식이 부족했을 때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 가야죠. 하지만 우리 면에만도 이같은 희생자가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직도 부모 형제자매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이들이 시신을 찾는 일에 남측 정부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아픈 마음만은 풀어 줘야죠."

문득 한백의 집을 나서면서 마주친 아주머니들이 생각났다. 이날 한백의 집에는 과천의 어느 교회에서 여신도 세 명이 나와 장기수 할아버지들에게 반찬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었다. 이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인사를 건네자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신 분들인데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보답 해야죠."라며 "이분들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불행한 시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너와 나, 우리 민족 모두가 희생자였다는 생각을 해야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의 화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바로 이러한 작업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으로 깔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함세환 선생

신념과 바꾼 험난한 세월

함세환 선생은 32년 1월 18일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읍 도원리 함촌 평범한 가정에서 4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현재 북한의 행정 구역상 도원리 함촌이라는 구역 대신 188반이라는 구역으로 불려지는 곳이다. 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함촌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곳에서 태어난 선생은 옹진 초등학교를 다녔고 17살이 되서야 졸업을 하게 된다. 그 당시 5~6학년 담당으로 선생을 가르치던 스승(박창범)이 아직도 인천에 생존해 있기도 하다.

선생의 치열하고 고난에 찬 삶은 8·15해방 이듬해 월북을 하면서 시작된다. 8·15 해방 당시 16살이었던 선생은 청진에 상륙하기 시작한 소련군이 개성을 거쳐 옹진까지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는 이북이지만 당시 3·8선 접경 이남 지역이었던 선생의 고향은 소련군 진주와 남한의 군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곳이기도 했다. 선생의 월북 단행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 대열에 서 있었던 친형(함세윤)의 영향과 권유로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옹진 광산에 일하던 선생의 형은 광산 일 외에 도 대표 육상선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었으며, 덕망 있는 인사로 신임을 받고 있는 터였다. 그러한 형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하

던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친일파를 제외한 일본유학생 등 지식인들과 사회 덕망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옹진 일대에서 인심을 얻고 있었던 선생의 형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되었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맞이하여 이른바 단선반대투쟁과 나아가 남북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이른바 연판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력으로 말미암아 선생의 형은 늘 경찰의 경계 인물이 되었고 미군정 하에서 체포, 마포형무소에서 7개월 간 복역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의 이력으로 인해 당시 선생의 집은 늘 경찰의 감시가 뒤따랐고 서북청년회원들의 행패 속에 편안할 날이 없었다. 당시 이러한 데 익숙했던 선생으로서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처지였지만 이념에 대한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선생이 결정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이남에 들어선 미군정과 그 밑에서 권력에 눈 먼 반민족주의자들의 행태를 목격하면서부터이다. 해방 후 사회적 분위기로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던 친일파 세력들이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일제히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득세를 하자, 더 이상 이남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연스레 사회주의자가 된 선생은 비합법 활동(지하 활동)에 들어가 있던 형의 권유로 월북을 하게 된다. 이 때가 49년 겨울의 일이다. 월북할 때 선생의 부친은 그들을 격려하며 삼촌을 시켜 3·8선 경계까지 짐을 들어주도록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선생은 형과 형수 그리고 4살 난 조카와 함께 3·8선을 넘어 월북하였다.

월북 후 선생은 거의 집을 비우면서 사는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조카를 돌보며 옹진군 벽성면 가대리 수리조합에서 4급 노동자로 형수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머물고 있는 이남 고향에서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49년 월북 직후 경찰에 의해 사실이 탄로나 짐을 들어줬던 삼촌이 경찰에 연행되어 처형된다. 부모와 8살 난 조카가 살고 있던 고향집은 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에 의해 주저앉았고(기둥에 밧줄을 묶어 무너뜨림) 부모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여 연명하다가 그 이듬해 6·25가 터지자 경찰에 의해 양친과 조카, 당숙까지 포함한 일가족이 학살을 당하게 된다.

6·25가 터지자 선생은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입대, 조선인민군 제 2사단에 편성되어 경상남도 창녕까지 남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하던 중 퇴로를 차단 당하자 선생은 조선인민군 유격대 제 6지대에 편성되어 유격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유격대 편성은 제 1지대(서울 지역)부터 7지대(경남 일원)까지 편성되어 활동을 하였는데 선생이 편성된 6지대는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다.

선생의 유격대 활동은 대둔산과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처음에 대둔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51년 말, 월동을 위해 덕유산으로 가던 중 국군의 공세를 만나 지리산 근방(남원과 운보 사이)에서 월동을 하게 된다. 52년 4월 월동을 마친 선생과 60여 명의 대원들은 덕유산으로 총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곳에 도달한 선생은 거창, 함양, 장수, 김천 지역에서 올라온 수천 명의 대원들과 합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선생은 해인사 작전을 펼쳐 해인사에서 수학 중이던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를 만나기도 한다. 후에 8·15 공세 작전을 치룬 선생은 속리산 근방에서 충청남·북 일대 제3지구당 총책이었던 박우연과 합류, 괴산군 군자산 일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53년 6월 2일 동지 5명과 함께 당 복구와 원호 사업을 위해 나오다 괴산군 솔면(화양 계곡) 하관평에서 총 4발을 맞은 채로 체포되고 다른 동지 4명은 전사하였다.

국군에게 체포된 선생은 포로수용소 대신 안동 헌병대 영창에 수용되

고 특무대의 취조를 받았다. 그러다 군법회의에서 검사의 구형은 사형이었으나 판사에 의해 무기를 확정 받았다. 사형 구형에서 무기 확정이 된 이유는 연령이 어리다는 것이었다. 체포 당시 총상으로 인해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와 먹지 못해 야윈 선생의 모습에 관대한 처분이 주어진 셈이다. 무기로 확정된 때가 54년 2월 28일이다. 이 때까지 대구 동촌 육군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 후 대구 민간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인민군대 본대에서 이탈된지 6개월이 지난 뒤 체포되었기에 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불취업 수감생이란 특이한 신분으로 민간 형무소 수감생활을 시작하였다. 선생의 수감 생활은 전쟁 중 체포된 적군이라는 신분과 온갖 전향 공작에 굴하지 않은 사상범이라는 이력 때문에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한 칸 반밖에 안 되는 방에 30명이 수감되어 발도 펴지 못하고 지내기도 했다. 또한 검신, 검방이라는 명분으로 발가벗겨진 채 인격을 송두리째 모욕당하기도 했고, '죽여도 백지 한 장만 쓰면 끝'이라는 협박 속에 날마다 계속되는 구타를 감내해야 했다. 때로 먹지 못해 병이 나도 "보리 1홉에 쌀 4홉을 먹는다."고 고백을 해야 했다. 하여 어떤 간수는 병이 난 수감자들을 보다 못해 엿밥을 얻어다가 먹여주는 일도 있었다.

4·19로 들어선 장면 정권 때, 선생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다. 그 이듬해인 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사 정권은 전국에 흩어져 수감되어있던 비전향 장기수 800여 명을 대전으로 집결, 한 곳으로 수감시키게 된다. 그러다 울진 삼척 지구 간첩 침투 사건과 청와대 습격 사건, 그리고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대전 한 곳으로 집결, 수감했던 비전향 장기수들을 대구와 광주, 전주 ,목포 등지로 분산 수용하게 된다. 이 때도 선생은 대전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73년 6월 25일 만기 출소하게 되었다.

괴산에서 체포된 지 21년 만에 출소한 선생이 갈 데라곤 갱생보호소밖

에 없었다. 그러나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쫓겨났다. 그 뒤 선생은 대전시 성남동에서 셋방을 살고 있던 친구에게로 갔고 그 곳에서 막노동 품을 팔며 생활을 하다가 닭 농장이었던 단학농장이라는 곳에 들어가 3개월 후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선생의 순탄할 것 같았던 사회생활은 베트남 공산화 이후 조바심을 느낀 군사정권의 사회안전법 발효로 끝나고 만다. 75년도에 발효된 사회안전법은 법무장관의 재량에 의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시 감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농장의 책임자로서 사회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해가던 선생은 4가지 이유(재산이 없다, 독신이다, 가족이 북한에 있다, 옥중 동료를 만났다.)로 대전교도소에 제1기생으로 재수감 된다. 그러다 77년 청주보안감호소(현재 여자 교도소)로 이송, 그 곳에서 89년 8월 7일 퇴소할 때까지 14년을 포함, 총 34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당시 베트남의 공산화로 급조된 사회안전법은 국회 내에서의 반대 여론과 해외 인권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3당 법사위에서 폐기하기로 합의, 보안관찰법으로 대치된 후 국회에서 통과를 보게 된다.

사회안전법 발효로 재수감된 제1기생 57명 중 함께 퇴소를 한 사람은 선생을 포함해 6명이었다. 나머지는 전향을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먼저 출소를 한 까닭이다. 이미 예순을 바라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선생은 청주에 잠시 머물다 대전으로 다시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된다. 체포되기 전 활동하던 곳이라는 것과 대부분의 수감생활을 한 대전에서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신념에서 그리한 것이다. 그 후 91년 경 대전 지역 인권단체들과 시민, 종교계에서 모금을 하여 선생에게 '사랑의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현재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험난한 삶을 조금은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전향

이다. 그러나 선생은 34년 2개월이라는 수감생활과 14년여의 사회생활을 그토록 험난하게 했던 비전향 사상범이라는 꼬리표를 끝까지 고집했다. 그로 인해 황혼의 시기가 다 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고 결혼도 못한 일흔이 된 독신의 노인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은 절대적이고 단호하다. 사실 57년부터 전향 공작은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전향 공작이 집요하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선생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져 갔다. 전향 공작이라는 것이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것과 그런 일제 잔재들의 악랄한 폭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껏 지켜온 이념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생의 이념에 대한 확신 한 가운데는 민족이라는 대명제가 우뚝 서있다. 모든 것이 민족이 우선이라는 선생의 민족사관 때문이다. "민족과 이념,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선생은 "그것은 통일된 7,000만 겨레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선생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역사적인 6·15 선언을 이끌어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비전향 장기수 북한 송환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고 곧 9월 전후로 북송이 추진될 상황이다. 선생은 이미 93년 이인모 선생이 북송된 직후(6월) 김인수 선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북송을 요구하였다. 95년에는 김영태 선생까지 포함하여 3명이 북송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북에서도 알게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선생을 포함한 3명을 우선 북송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송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선생의 북송 요구에는 북에 있는 가족들과 이념적 확신 때문이라는 점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마지막 임무라는 선생의 신념 때문이다.

고향을 가더라도 남쪽 생각이 더 날 것이라는 선생의 고백 속에 이미 남과 북이라는 사상적, 정치적 경계의 울타리는 없어 보인다. "이산가족 만들기 싫어 이제껏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그의 고백 속에 진정 그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남과 북 모두가 바라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새삼 느낀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험난한 세월들이 더욱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김석형 선생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단이니 통일이니 하는 문제에 큰 관심 가지지 못하고 살다가, 김석형 선생을 만나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생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좀 무거웠다. 우문을 던져서 선생을 실망시키거나 성가시게 하는 건 아닌지, 고단했을 삶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받아 적는 건 아닌지…. 그러나 봉천동 고개를 올라 선생이 살고 있는 '만남의 집'에 발을 들이고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우려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귀밑까지 내려오는 멋진 은발에 깊고 서글서글한 눈매, 미소 띤 인자한 얼굴, 넓은 품과 큰 키 등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했다.

"32년 6개월 동안 난 헛되이 살지 않았어."

이제까지 선생을 지탱하게 한 힘이 무어냐고 묻자 선생은 이렇게 운을 떼었다. 선생은 61년 5·16 쿠데타 직후 남으로 내려와 활동하다가 62년 12월 중앙정보부에 검거되어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인권 문제가 대두되어 장기수 중 70세 이상 고령에다가 30년 이상 복역인 자에 한에서 석방한다는 방침 아래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32년 6개월이었다. 감옥에서 선생은 책을 가까이 했다. 특히 선생에게 힘이 되어준 책은 문학작품으로 읽은 성경의 시편과 욥기였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 온갖 고난 중에서도 극기해 낸 모습은 선생이 감옥에서 보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지탱하게 해 준 모범이었다.

그리고 그뿐이었으랴. 선생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북에 부인과 4남 2녀의 자녀가 있었다. 남으로 내려올 때 당시 스물다섯이던 큰아들은 군에 가 있었고, 세 살인 막내 장성은 한창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지금도 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선생은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본다. 어떻게 아느냐고, 들은 소식이라도 있냐고 묻자 선생은 소식을 들은 바는 없지만 "내 이 양심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양심이 말하길 그저 다 잘 있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축축이 젖어드는 순간이었다.

선생은 당신 자신을 미래파라고 말씀하신다. 미래파가 뭐냐고 묻자 그는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선생이 다른 말 중에 자신을 가리켜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일 것이다. 굳은 신념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희망일 것이다.

선생은 훤칠한 키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 날이 다르게 건강에 무리를 느낀다. 곧았던 허리가 45도로 꺾이고, 70년대 초반 전향서 작성을 거부하다가 당한 고문에 4번과 5번 요추에 디스크가 생겼는데 젊었을 땐 저항력이 강해서 잘 견뎠지만, 요즘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선생은 요즈음 학교강연이나 모임 등에 나가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다. 북에 돌아가는 그 날까지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게 그의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신이 좌우명으로 삼아온, 이 사회가 바르게 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첫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 둘째는 영원한 평화, 곧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 그리고 셋째는 사형제도의 폐지이다.

선생의 이 말은 우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간첩'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전히 '간첩' 냄새를 풍기게 하는 '비전향'이라는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홍경선 선생

통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홍경선 선생은 25년 5월 21일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선리에서 출생하였다. 천안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1세 되던 해 해방을 맞았다.

일제 때부터 민족주의자였던 선생은 똑똑한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이 노동계급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청년, 남로당에 입당하게 되었는데, 그 때 나이가 22살이었다.

47년 미군정은 이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탄압, 파괴공작에 들어갔고, 드디어 그는 그 해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갔다. 무허가 집회를 했다는 죄목이었는데, 구류 1달 벌금 1만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48년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3년 징역을 받게 되고, 50년 6·25가 일어나기 직전 서울로 이감되었다. 그 후 감옥에서 나간 선생은 태백산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가게 되었다. 고단했던 생활을 잠시 접고 54년 북한에서 어여쁜 색시를 만나 장가를 갔고, 56년 첫 아이를 낳았으며 모두 5남매를 두었다.

31세의 늦은 나이지만 '송도 정치경제대학'에 들어가 만학의 즐거움도 누렸다. 그러던 중 67년 '혁명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그 해 조치원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